



LG화학 주주를 위한 서한

전지 사업 분할 배경 및 LG화학의 VISION

2020. 10. 14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지난 9월 17일 이사회에서 전지 사업을 분할 후 LG화학의 자회사로 설립하는 것을 의결하였고, 10월 30일 주주총회에서 주주 여러분의 최종 승인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 본격 도래로 전지 산업은 앞으로도 엄청난 성장이 예상됩니다만, 그런 만큼 신규 경쟁자의 진입, 완성차 업체의 전지 자체 생산 시도 등 경쟁도 매우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지난 25년간 선도적인 전지 연구 개발과 사업 전개를 통해 150조원 이상의 EV전지 수주잔고를 확보하는 등 글로벌 리더의 지위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경쟁의 심화, 설비 투자 확대에 따른 재무 구조 부담 등 도전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전지 사업에서의 구조적인 체계 구축을 통한 확고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지 사업부문의 분할을 결정하였습니다.

우선, 전지 사업은 독립 법인으로 출범함으로써, 전지 사업의 특성에 맞는 최적화된 조직 구성을 통해 보다 빠른 의사결정 체제 구축과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추후 다양한 Financing 방안을 통해 성장을 위한 충분한 투자 자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분사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으로 기존 석유화학, 첨단소재, 생명과학 사업부문에 투자 확대할 수 있을 것이며 주주들에 대한 환원 정책도 강화할 수 있기에 LG화학 사업 포트폴리오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주가치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글로벌 Top5 화학회사로 발전해가는 LG화학의 성장을 위해 주주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G화학 CEO 신학철



1. 높은 성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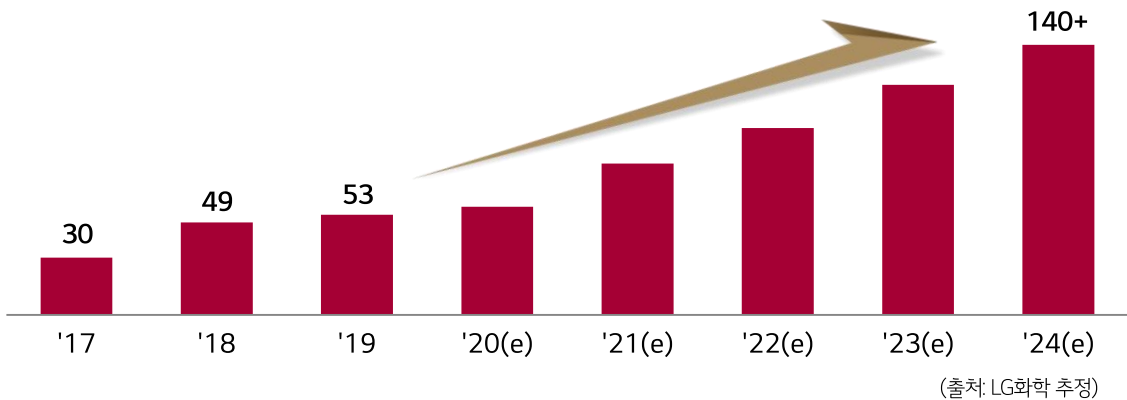
글로벌 전지 시장은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여겨질 만큼 성장 잠재력이 높으며, '19년 약 50조원 시장에서 '24년 140조원 이상의 규모로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① 각국 정부의 연비/환경규제 강화, 친환경 자동차/에너지에 대한 정책 지원 확대
- ② 전지소재, 공정 기술 및 양산 기술의 진보를 통한 가격 경쟁력 제고
- ③ 전기차 성능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한 상품성 확보 및 충전 인프라 확대

이처럼 단기적으로 Regulation Push 시장에서 '25년 이후 소비자 주도로 성장하는 Customer Push 시장으로 전환되면서, 장기적 관점에서도 전지 산업은 지속 성장할 것입니다.

전지 산업 전망

단위: 조원



2. 경쟁 심화

다만, EV전지 중심으로 리튬이온전지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전방산업에서 전지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며 업체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동차 OEM 중심으로 자체 전지 양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개발 시도가 늘어나고 있고, 각국 정부 지원 하에 신규 전지 업체들도 OEM과의 협업을 통해 대규모 공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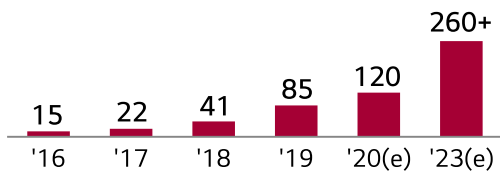
**고성장의 기회와 경쟁 심화의 위기가 동시에 있어
지금 이 전지 사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LG화학은 1996년 2차 전지에 대한 R&D를 시작으로
지난 25년간 선도적 기술개발과 함께 전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2020년 8월말 기준, 2차 전지 특허건수는 약 22,000여건으로 업계 Top 수준이며, 전지 탑재량 기준
2020년 8월 누적 EV전지 M/S(24.6%) 1위로 Global Leader의 입지를 견고히 해왔습니다.
또한, Global 주요 OEM으로부터 EV전지에 대해 150조원 규모의 수주잔고를 쌓았으며,
수주 물량의 적기 대응을 위해 글로벌 전지 생산 Capa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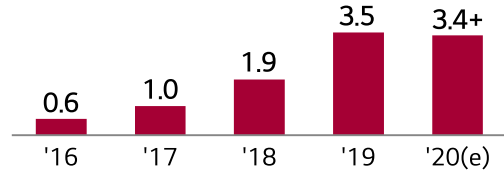
EV전지 Capa 추이

단위: Gwh



연도별 전지 Cap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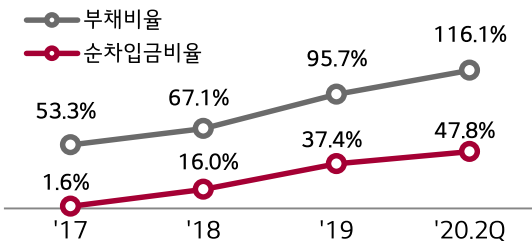
단위: 조원



Capa 투자를 위한 전지 사업의 Capex 규모는 2018년부터 본격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급증하는 수주 대응을 위해 향후에도 연간 3조원 이상의 Capex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Capex 투자 이후 이익의 실현은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투자의 확대는
2018년부터 LG화학의 재무구조에 부담이 되어 2020년 국제 신용등급이 강등된 바 있습니다.

LG화학 부채비율/순차입금비율



LG화학 신용등급

구분	'19	'20
S&P	A-	BBB+
Moody's	A3	Baa1

※ S&P '19년 12월 강등, Moody's '20년 2월 강등
- 2010년 이후 약 10년 만에 신용등급 강등

**LG화학은 전지사업에서 확고한 Leadership을 구축했지만,
Capex 투자의 확대는 재무구조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고성장하는 전지 시장에 대한 기민한 대응 및 대규모 Capex에 대한 부담을 극복하고, 전지 사업에서의 확고한 일등 지위를 지속 유지하기 위해서 분할을 결정하였습니다.

1. 빠른 의사결정 체계 및 신사업 전문 조직 구성

전지 사업에 보다 최적화된 빠르고 유연한 의사결정 및 효율적인 조직운영 체계를 위하여 독립적인 조직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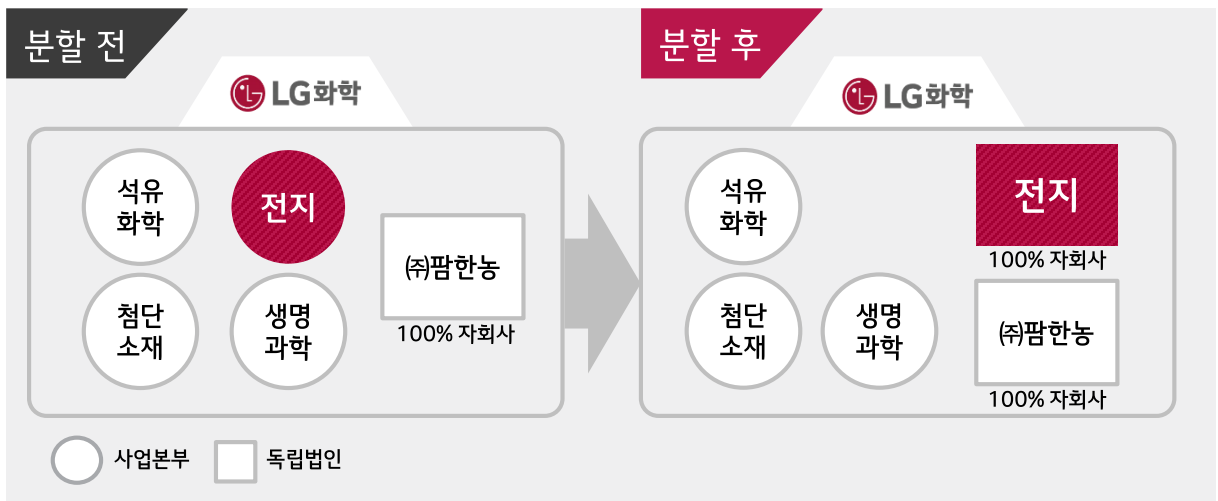
또한, 전기차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전지 제조 뿐 아니라 케어/리스/재사용 등 Life-time 전반의 서비스 산업이 성장하는 것에 대비하여, 전지 제조 이외에 신규 사업과 비즈니스 모델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2. 사업 성장을 위한 다양한 자금 조달 방안 필요

LG화학의 100% 자회사로 신설될 전지 독립법인은, 사회적 책임투자(SRI) 강화 기조에 따라 대규모 Green Bond 발행 등의 다양한 자금 조달 방안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투자를 확대하여 경쟁사들과의 격차를 보다 넓히고자 합니다.

분할 후 모습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보다 공고히 대응하기 위해 독립회사로서 경쟁력을 제고하여 Global No.1 지위를 지속 유지하겠습니다

분사를 통해 LG화학 전지 사업은 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LG화학의 가치를 보다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투자 가속화

현재 EV전지에서 150조원 규모의 수주를 이미 확보하였고, 차기 프로젝트 수주 및 수요 증가에 대한 추가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EV 외에 그린 뉴딜로 인한 ESS시장을 비롯하여 AGV(Autonomous Guided Vehicle), 자율주행 로봇 및 셔틀 등 신규 시장도 확대되고 있어,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적기 리소스 투입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Capa 투자와 신소재·신기술 개발, 그리고 경쟁력 있는 업체와 전략적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전기차 및 신규 리튬이온전지 시장에서 Global 일등 지위를 공고히 유지하겠습니다.

2. 선도적 기술 개발

지금까지 축적한 전지 관련 소재 / 공정기술을 보다 고도화하고, 스마트 팩토리 도입을 포함한 양산 기술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차별화 성능 구현 및 원가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전고체전지, 리튬황전지를 비롯하여 새로운 전지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에 보다 박차를 가하고 Open Innovation, 파트너와의 협력 등을 통해 미래전지 기술 개발을 주도하겠습니다.

3. e-Platform 사업 전개

또한, 앞으로 전지가 보다 더 많이 사용되면, 전지 제조 외 새로운 기회 모색을 위한 e-Platform 서비스 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자원 선순환 체계 구축의 일환이며 전지의 전 생애주기를 커버하여 전지의 상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를 활용한 리스, 보증, 중고 전지 및 전기차 인증 서비스의 제공 등 여러 사업 모델로 확장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지 사업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초격차 전략으로
Global Leadership을 더욱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전지 사업 일등 경쟁력 확보와 함께, 기존 사업의 수익 동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 하고, 전지소재 중심의 e-Mobility소재 / Sustainability 소재 / Life Science 등 Megatrend에 기반한 유망 성장 영역에서 신규 성장 사업의 발굴/육성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사업 모델 다변화와 M&A, J/V 등 다양한 Inorganic 접근 방식을 적극 추진 중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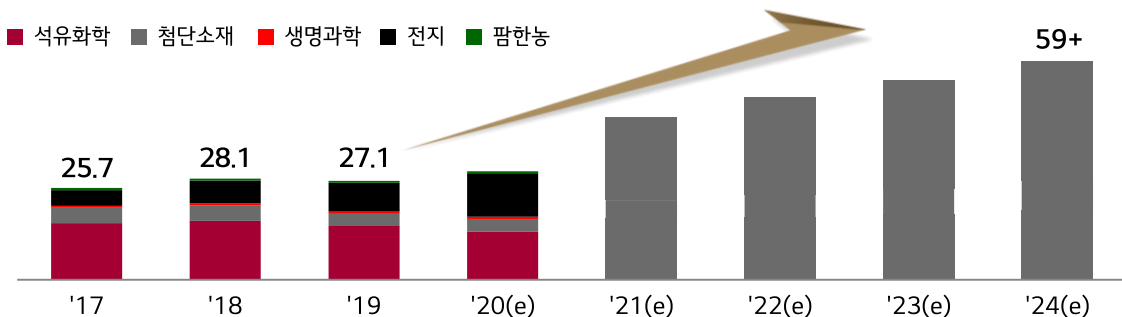
- ① 석유화학은 유망 성장 시장(Hygiene, Packaging, Sustainability) 중심으로 고부가 제품 확대 및 Global 사업 확장 적극 추진
- ② 첨단소재는 전지소재 중심의 e-Mobility 분야를 적극 육성하여 Portfolio를 재편하고, 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 선도사와의 협력 적극 활용
- ③ 바이오는 당뇨/성장/백신/바이오시밀러 사업에서 제품 및 해외시장 확대를 통해 추가 성장하고, 신약 개발 가속화 및 성공률 제고를 위해 외부 업체와의 협력 Network 확대
- ④ 미래 준비(R&D)는 유망 성장 시장 중심으로 자원을 재편하고, 사업화 역량 대폭 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향후 전망

단위: 조원



LG화학은 균형 있는 포트폴리오를 갖춘 'Global Top 5 화학 회사' 로 지속 성장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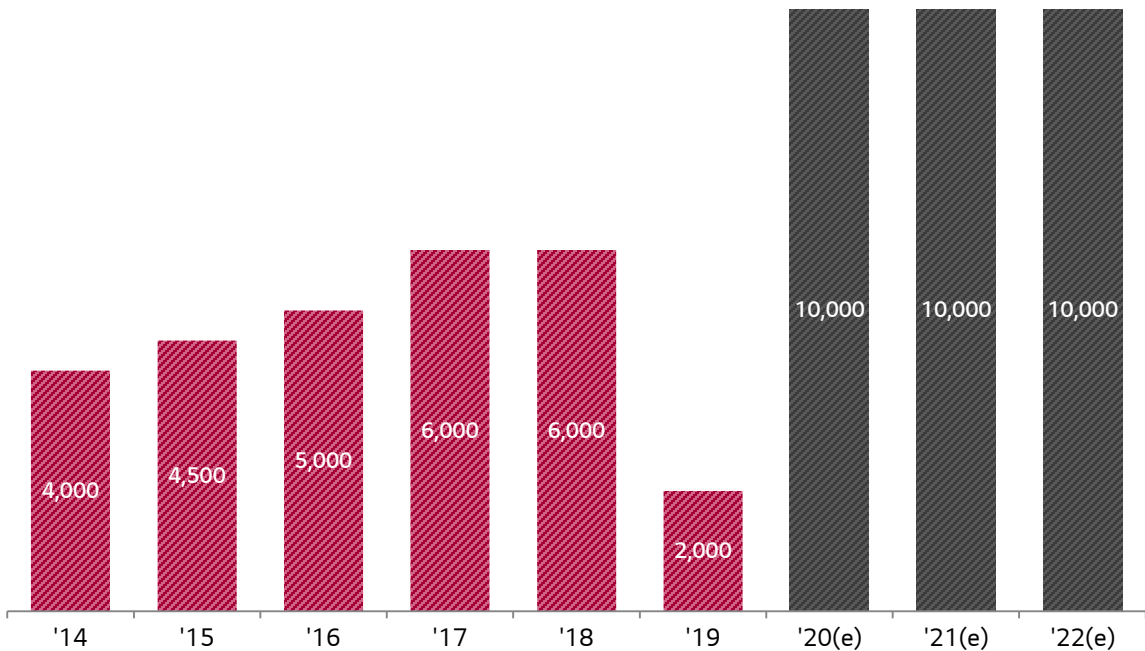
전지 사업의 분할 이후, LG화학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새로운 배당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1 분할 전과 동일한 배당재원 기준 적용을 위해 연결재무제표 당기순이익 기준 **배당성향 30% 이상 지향**

2 분할로 인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확고히 하고자 향후 3년간('20년~'22년) **보통주 1주당 최소 1만원 이상의 현금배당 추진**

주당 배당금(DPS) 추이

단위: 원



신규 배당 정책 수립을 통해 주주가치를 보다 높이고, 향후 3년간 일정 금액 이상 배당 지급을 추진하여 불확실성으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전지 신설법인 설립 이후 다음과 같은 Governance 구조 및 공시 등 Communication을 통해 LG화학의 주주권을 보호하고 가치를 보다 높이고자 합니다.

공시

신설법인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주요한 사항을 적시에 공시하여 경영/재무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구분	주기	비고
정기보고서	분기	•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대규모내부거래	결정시	• 계열회사간 내부거래 사항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발생시	• 임원의 변동 • 최대주주의 지분 변동 • 타법인 주식 취득·처분 • 유·무상 증자 결정 등

Governance 체계

비상장 신설법인의 보다 투명한 Governance 체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 ① 신설법인은 LG화학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LG화학 사내이사 1인 이상이 신설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으로 참여 예정
- ② 신설법인은 비상장회사이지만,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선임 추진
- ③ LG화학의 감사위원회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LG화학 주주와의 소통

또한, LG화학의 주요 사업으로서 신설법인이 비상장 회사이지만, 다음과 같은 IR활동을 통해 LG화학 주주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① LG화학 주주총회에서 신설법인의 주요 경영 현황 보고
- ② 신설법인 최고 경영진이 연1회 이상 LG화학 주주/투자자 대상 직접 Communication
- ③ 신설법인의 주요 임원이 LG화학의 실적설명회에 참석하여 경영 실적 및 전망 보고

주주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73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 LG트윈타워
T.+82-2-3777-1114 www.lgchem.com

